

##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 선율에 관한 고찰\*

— 진양조 음악구조를 중심으로 —

이형환<sup>\*\*</sup>·김백만<sup>\*\*\*</sup>

- 
1. 서론
  2. 본론
  3. 결론
- 

## 1. 서론

산조(散調)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음악 중 대표적인 기악독주곡으로 “허튼 가락”<sup>1)</sup>이라고도 하며, 산(散)과 조(調)의 합성어(合成語)이다.<sup>2)</sup>

---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 수료

1)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369쪽.

2) 산조(散調)의 산(散)은 전통음악에서 선율의 시작과 끝을 지칭하는 “마루”들이 흩어져있는 것을 말하며, 조(調)는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조성(調聲)인 우조, 평조, 계면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산조는 선율의 시작과 끝이 있는 마루들을 우조, 평조, 계면조라는 조성을 중심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와 같은 장단(長短)의

즉 산조음악은 부정형(不定形)의 악절(樂節)을 세는 단위이며, 선율의 맺고 푸는 과정의 단위를 지칭하는 “마루”<sup>3)</sup>들을 우조, 평조, 계면조와 같은 조성(調聲)과 장단의 틀에 적합하게 맞춘 음악이라고 하겠다.

산조음악은 19세기말 경 전라남도 영암출신의 김창조(金昌祖, 1865~1918)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등 대부분의 전통 악기에서 산조 음악을 구성하여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가야금 산조 이후 생성된 거문고 산조는 1896년 경 충청남도 강경 출신인 백낙준(白樂俊, 1876~1930)에 의해 처음으로 연주되었고, 김종기(金宗基, 1905~1945), 박석기(朴錫記 1899~1952), 신쾌동(申快童, 1910~1978)에게 전수되었으며, 박석기는 한갑득(韓甲得, 1919~1987)에게 전수하였다.<sup>4)</sup> 현재는 신쾌동류,<sup>5)</sup> 한갑득류,<sup>6)</sup> 김윤덕류 등 세 유파의 거문고 산조가 전해지고 있으며, 신쾌동류와 한갑득류는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반면에 김윤덕류는 전승이 단절되어 있다.

백낙준에 의해 시작된 거문고 산조는 신쾌동과 한갑득에 의해서 산조 악장과 가락의 확장을 거쳐서 하나의 거문고 산조 유파(流派)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산조의 명인들은 본인의 유파를 형성하기

틀 속에 맞게 구성한 전통음악을 말한다.

3) 변미혜 외 2인(2008), 『국악용어 편수 자료집 I』, 민속원, 43쪽.

4) 박금애(1976), 「산조의 계보와 그 전래」, 『공간』, 97쪽. 이형환(1992), 「패법을 통해 본 거문고산조의 조 변화」, 중앙대 석사논문, 1쪽 재인용.

5) 송방송(2011), 『한국현대음악인사전 上』, 보고사, 858쪽. 신쾌동류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김영재(1947~) 명인에 의해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보존회’에서 거문고산조 가락과 거문고 향채 풍류, 거문고병창 가락이 전승되고 있음.

6) 송방송(2011), 위의 책 下, 1836-1837쪽. 한갑득류는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재화(1953~) 명인에 의해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가락이 전승되고 있음.

위해 선생에게서 배운 가락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가락을 삽입시켜 가며 선율 확장의 과정을 통한다.<sup>7)</sup> 즉 산조의 명인들은 본인의 유파 형성을 위해 선생에게서 배운 가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악장과 가락을 구성하거나 첨가하는 방식, 또는 기존 선율의 확장과 축소, 연주법의 변화 등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산조가락과 유파를 형성하여 왔다. 또한 산조 명인들은 자신의 산조 유파 형성을 위해 평생에 걸쳐 가락을 구성하고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유파(流派)를 형성하게 된다. 산조 명인들의 산조가락 형성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현행 전승 가락을 대상으로 고찰할 수도 있지만, 현행 전승가락 이외의 산조 가락에 대한 미발매 된 음원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는 것이 산조가락 형성과 구조 분석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 금현(琴軒)신파동(申快童) 거문고 산조 명인은 생전에 유성기 음반(SP)과 장시간 음반(LP)을 모두 남긴 명인이며, 산조의 악장(樂章)구성과 가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시간 음반은 총 5종으로 확인된다. 즉 신파동 명인의 첫 음반 녹음은 1938년 OK사에서 취입한 유성기 음반이며,<sup>8)</sup> 장시간 음반은 1960년 경 녹음된 신세기레코드사, 대도레코드사 음반, 1976년 제작된 오아시스레코드사 음반, 1981년 발매된 문화재보호협회 기획의 지구레코드사 음반, 1983년 제작된 현대음반 등이 있다.<sup>9)</sup>

신파동 명인의 산조가락은 1938년 첫 음반인 유성기음반 취입 이후

7) 김해숙(1987), 『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42쪽.

8) 신파동 엮음(1977), 『현금곡전집』, 창명사, 6쪽.

9) 노재명(1993), 「거문고산조 음반에 대하여」, 『한국음반학』Vol.3, 한국고음반연구회, 173-183쪽. 1981년과 1983년 제작 발매된 지구레코드사, 현대음반의 신파동 거문고산조는 1977년 속환으로 별세하기 이전에 녹음한 것으로 신파동 명인 사후에 발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여 년이 지난 1960년 경 거문고 산조 전 바탕 음반 녹음이 이루어지는 데, 유성기 음반의 녹음시간은 대략 5분 이내로 전체적인 산조가락 구성을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1960년 경 취입한 산조 가락이나 현재 연주되는 60여분의 가락과 비교 분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 동안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연구에 있어서 1938년 음원과 1960년 경 이후에 제작된 음원들 간의 산조가락 형성에 대한 거문고 연주자와 학자들의 노력들이 있었으나 20여년의 간극을 메워 줄 새로운 음원자료를 찾지 못해 연구의 답보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서 서봉(曙峯) 허순구(許珣九, 1903~1978)가 녹음하고 그의 자제가 기증한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반까지 릴테이프(Real Tape)를 복원하여 음반으로 제작하였다.<sup>10)</sup> 복원 제작된 음원들 중 신파동 명인이 연주한 거문고 산조와 병창, 풍류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1938년 첫 음원 제작이후 1960년대로 건너뛰는 신파동 거문고 산조의 20여년의 공백을 메워주고, 음악적인 측면에서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음원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거문고 산조의 진양조 악장은 산조 구성측면에서 다양한 조

10) 전라북도립국악원(2016), 『풍류방의 명인들 -송영식의 판소리와 신파동 거문고산조』 해설집, 전라북도립국악원, 2쪽. 서봉(曙峯) 허순구(許珣九, 1903~1978)는 전통음악 음향기록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기간 동안 전통음악 대가들을 초청하여 그 당시에는 귀했던 릴테이프로 소중한 음원자료를 녹음하였다. 서봉 선생은 진주 출신 기업가로 진주의 백화점인 “문성당”(1927)을 설립하였으며, 1938년에는 처남인 고 이병철회장과 함께 “삼성상회”를 창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봉 선생은 사업에서 은퇴 후 대구시 동촌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짓고 국악동호회를 설립하여 풍류음악을 즐기면서 당시에 경향(京鄕)에 유명한 국악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주를 즐기기도 하고, 여러 명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1950~1960년대 국악의 역사에 한 장을 남긴 분이다. 1990년 초반 서봉 선생이 녹음한 20개 분량의 릴테이프를 그의 자제인 허병천 선생이 전라북도립국악원 기증하였고, 이후 전라북도립국악원에 서는 서봉 선생의 자료를 매년 복각음반으로 제작하고 있다.

성 구성과 많은 조 변화가 발생하는 악장이며, 특히 산조 연주자들과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력을 들이는 악장으로 구성력이 좋은 산조를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기량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녹음된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를 중심으로 거문고 산조의 선율에 중점을 두고 사용패법, 조성구분과 장단의 길이, 선율진행, 사용음계 등을 분석하여 1950년대 신파동 거문고 산조의 음악적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본론

### 2.1. 사용패법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에서 출현하는 사용패법은 2패법, 4패법, 5패법, 6패법, 7패법, 8패법, 9패법 등 총 7개의 패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사용패법

| 순서 | 패법  | 조성  | 본청             | 장 단                                | 비고 |
|----|-----|-----|----------------|------------------------------------|----|
| 1  | 2패법 | 계면조 | c              | 제42장단 제3박 제2음~제44장단                |    |
| 2  | 4패법 | 우조  | C              | 제1~3장단, 제9장단 제1박~제3박, 제9장단 제5박~제6박 |    |
|    |     | 평조  | B <sup>b</sup> | 제10장단~제12장단,                       |    |
|    |     | 평우조 | C              | 제20장단~제21장단                        |    |
|    |     | 계면조 | g              | 제39장단 제5박~제6박                      |    |
|    |     |     | f              | 제84장단~제89장단 제5박, 제90장단 제3박~제91장단   |    |
| 3  | 5패법 | 우조  | C              | 제9장단 제4박, 제25장단 제6박~제28장단,         |    |

|   |     |     |                |                                                                                      |       |
|---|-----|-----|----------------|--------------------------------------------------------------------------------------|-------|
|   |     | 계면조 | c              | 제35장단 제5~6박, 제40장단~제42장단 제3박 제1음, 제45장단~제46장단 제5박, 제81장단~제82장단                       | 들장 포함 |
|   |     |     | g              | 제29장단, 제31장단, 제36장단 제3박, 제37장단~제39장단 제4박                                             |       |
|   |     |     | f              | 제83장단, 제89장단 제6박~제90장단 제2박                                                           |       |
| 4 | 6패법 | 계면조 | g              | 제36장단 제4박~제6박                                                                        |       |
| 5 | 7패법 | 평조  | B <sup>b</sup> | 제13장단~제19장단                                                                          |       |
|   |     | 계면조 | g              | 제30장단                                                                                |       |
| 6 | 8패법 | 우조  | C              | 제4장단                                                                                 |       |
|   |     |     | G              | 제5장단, 제6장단 제4박~제8장단,                                                                 |       |
|   |     | 계면조 | g              | 제32장단, 제67장단~제68장단 제4박,                                                              |       |
|   |     |     | c              | 제33장단~제35장단 제4박, 제46장단 제6박~제59장단, 제60장단 제5박~제66장단, 제68장단 제5박~ 제80장단, 제94장단 제5박~제96장단 |       |
|   |     |     | f              | 제92장단~제94장단 제4박                                                                      |       |
| 7 | 9패법 | 우조  | C              | 6장단 제1박 제2음~제3박                                                                      |       |
|   |     | 계면조 | c              | 제90장단 제4박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판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우조선율에서 사용하는 패법은 4패법, 5패법, 8패법, 9패법 등 네 개의 패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5패법과 9패법은 C본청 우조 선율 연주에서 짧게 나타나며, 이는 4패법과 8패법의 음역의 확장을 위해 임시적으로 패를 이동하여 사용한다. 평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패법은 4패법, 7패법 등 두 개의 패법을 사용하며 평우조 선율은 4패법을 사용한다. 계면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패법은 2패법, 4패법, 5패법, 6패법, 7패법, 8패법, 9패법 등 총 7개의 패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6패법, 7패법은 계면조 연주 시 5패법의 음역 확장을 위해 임시적으로 패를 이동하여 사용하며, 동일한 원리로 9패법은 8패법 연주 시 사용 음역의 확장을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패법이다.

이와 같이 우조선율은 4괘법과 8괘법, 평조 및 평우조선율은 4괘법과 7괘법, 계면조선율은 2괘법, 4괘법, 5괘법, 8괘법을 주요 괘법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2.2. 조성구분 및 장단 수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는 총 9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 구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악기의 산조들과 동일하게 우조, 평조, 계면조를 중심으로 악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성에 따른 사용장단 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조성 구분 및 장단 수

| 순서 | 조성  | 본청             | 장단 수      | 총 장단 수 | 합계   |
|----|-----|----------------|-----------|--------|------|
| 1  | 우조  | C              | 7장단       | 9장단    | 96장단 |
|    |     | G              | 2장단       |        |      |
| 2  | 평조  | B <sup>b</sup> | 7장단       | 14장단   |      |
|    |     | B <sup>b</sup> | 7장단       |        |      |
| 3  | 평우조 | C              | 2장단       | 2장단    |      |
| 4  | 계면조 | f              | 11장단 1박2음 | 71장단   |      |
|    |     | c              | 50장단1음    |        |      |
|    |     | g              | 9장단 4박    |        |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우조선율은 총 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장단 구성은 4괘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이 C본청 우조가락 3장단 5박, 8괘법은 C본청 우조가락 3장단, G본청 우조가락 1장단 3박, 9괘법은 G본청 우조가락 3박, 5괘법은 C본청 우조가락 1박 등 총 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조선율은 총 1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조선율의 세부 장단 구성은 4괘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이 B<sup>b</sup>본청 평조가락 6장단 5박, 5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계면조로 전조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1박을 사용한다. 7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7장단 등 총 1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우조선율은 4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이 C본청 평우조 가락 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면조선율은 총 7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장단 구성은 2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c본청계면조 2장단 3박 2음, 4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g본청계면조 2박, f본청계면조 7장단 2음, 5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c본청계면조 10장단 3박 1음, g본청계면조 4장단 1박, f본청계면조 5장단 5박 2음, 6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g본청계면조 3박, 8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c본청계면조 37장단 3박, g본청계면조 2장단 4박, f본청계면조 2장단 4박, 9패법으로 연주하는 가락은 c본청계면조 4박 등 총 71장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의 조성은 우조 9장단, 평조 14장단, 평우조 2장단, 계면조 71장단 등 총 96장단으로 진양조 선율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선율진행

#### 2.3.1. 우조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우조선율은 총 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본청 우조선율과 완전5도 위로 변청되는 G본청 우조 선율로 구성된다.

##### 2.3.1.1. C본청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C본청 우조선율은 4패법 4장단과 8

패범 3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C본청 우조선율의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1>과 같다.

<예보 1> C본청 우조선율

1

진 양 조

1 <4래> 우조 (C본청)

씨름 당 1등 도 2등 2등 도 2등 2등 물

2

슬 기 등 물 등 1등 등 청 청 청

3

등 1등 도 2등 2등 로 2등 2등

4 <8래>

등 2등 물 등 2등 등 당 2등 당 물 등 당 물

7 우조 (C본청)

등 당 2등 두 다 1등 등 당 당 물

8

등 2등 물 등 2등 등 당 2등 당 물 도 옷 당 물

9 <4래> <5래> <4래>

슬 기 등 등 등 등 등

<예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장단은 시작음을 C본청 우조선율의

본청음인 C음의 완전 5도 위 G음으로 시작하여 제 2박 제 1음을 굵고 빠르게 농현한 후 제 3음인 E<sup>b</sup>음을 D음으로 퇴성하여 남성적이고 호기있고 깨끗한 느낌의 우조적 성음을 표현한다.<sup>11)</sup> 제 5박과 제 6박에서는 G음과 본청음인 C음으로 중지한다. 제 2장단에서는 제 3박부터 제 6박까지 본청음인 C음을 반복하여 본청 C음을 강조한다. 제 4장단에서는 4괘법에서 8괘법으로 괘를 이동하여 C본청 우조선율의 음역 확대 현상을 보이며, 제 3박과 제 4박 제 2음까지 E<sup>b</sup>음과 C음을 통하여 우조적인 느낌을 나타낸 후 제 6박에서는 본청 C음으로 중지한다. 제 7장단과 제 8장단의 선율 진행은 제 1박 G음을 굵게 농현하여 우조 성음을 표현한 후 본청 C음을 강조하는 선율로 중지하고 있다. 또한 제 9장단의 경우 8괘법에서 4괘법으로 이동하여 1장단 전체를 본청 C음을 강조하는 선율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1.2. G본청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우조선율은 8괘법 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G본청 우조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2>와 같다.

#### <예보 2>

#### G본청 우조선율



11) 김해숙 외 2인(1995), 『전통음악개론』, 어울림, 182쪽.

<예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5장단은 음의 기능을 바꾸는 변청을 통하여 G본청 우조선율로 선율을 진행하고 있다. 즉 제 1박 3음과 제 2박에서 C본청 우조선율에서 출현하지 않는 B<sup>b</sup>음을 A음으로 퇴성하여 우조적 느낌을 강조하는 선율로 진행한 후 제 6박을 본청 G음으로 종지한다. 제 6장단에서는 C음을 D음으로 밀어서 진행한 후 제 4박은 8괘법으로 이동하여 본청 G음을 강조한 후, 제5 박과 제 6박에서는 C본청 우조가락으로 다시 변청하기 위해 G음을 곱게 농현하여 음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2. 평조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평조선율은 총 1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sup>b</sup>본청 평조선율은 7괘법 평조선율과 계면조로 변조하기 위한 4괘법 돌장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2.1. B<sup>b</sup>본청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B<sup>b</sup>본청 평조선율은 4괘법 7장단(돌장가락 포함)과 7괘법 7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B<sup>b</sup>본청 평조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3>과 같다.

<예보 3> B<sup>b</sup>본청 평조 선율

<4괘>평조 (B<sup>b</sup>본청)

10 풀 싸령 풀 두 다 1령 풀 풀 다 2령 1지동 당

11 동 당 다당 다 동 명 명 명 명 명 명 풀

12 동 당 1징 당 2징 1징 풀 두 다 2징 라 1징 1징

13 <7괘> 풀 살 3징 풀 2징 동 2징 풀 로 2징 3징 2징

14 동 동 당 동 당 풀 동 2징 동 3징 2징 동 당 풀

15 동 2징 4징 3징 동 2지 동 다 동 두 당 풀

16 동 도 옷 동 다 1동 동 덩 동 동 두 당 풀

<예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0장단 제 1박은 문현 G음과 함께 B<sup>b</sup> 본청의 완전4도 아래음인 F음으로 시작하여 제 3박과 제 4박에서 본청 B<sup>b</sup>음을 강조하고 제 5박 제 2음을 C음에서 B<sup>b</sup>음으로 퇴성하여 평온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평조적인 느낌<sup>12)</sup>을 강조 한 후 F음으로 종지한다. 제 11장단 제 1박 제 3음과 제 2박의 F음을 조이듯이 농현한 후 제 3박부터 제 6박까지 본청B<sup>b</sup>음을 강조하는 선율로 진행하고 있다. 제 13장단 부터는 7괘법으로 이동하여 제2박에서 G음을 F음으로 퇴성하고, F음을 잔잔하면서 조금 빨리 농현하여 평조 성음을 표현한 후 제 6박음을

12) 김해숙 외 2인, 앞의 책, 182쪽.

F음으로 중지한다. 제 14장단은 제 1박을 떠는음 F음을 중심으로 선율 진행 한 후 제 2박 제 3음과 제 6박을 본청 B<sup>b</sup>음으로 중지한다. 이후 제 15장단과 제 16장단 제5 박의 C음을 퇴성과 추성시김새를 사용하여 평조 성음을 표현하고 본청 B<sup>b</sup>음으로 중지한다.

특히 제 11장단부터 제 16장단까지의 평조선율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가락들 중 미전승 가락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현행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와의 가락비교, 산조가락의 확장과 축소, 가락의 첨가 및 탈락, 시김새 등 현행 거문고 산조와의 가락 비교 연구 혹은 가락 형성 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선율이라고 하겠다.

### 2.3.3. 평우조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평우조선율은 4괘법 C본청 평우조선율로 총 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3.1. C본청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C본청 평우조선율은 4괘법 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C본청 평우조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4>와 같다.

<예보 4> C본청 평우조 선율



<예보 4>에 보는 바와 같이 C본청 평우조선율 제 20장단은 B<sup>b</sup>음으로 시작하여 B<sup>b</sup>음을 반복하여 B<sup>b</sup>본청 평조 느낌을 강조한 후 G음으로 종지한다. 제 21장단은 제 1박부터 A<sup>b</sup>음과 F음을 추성하여 우조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제 2박에서 우조성음을 표현하기 위해 F음을 굵고 많이 떨으며, E<sup>b</sup>음을 D음으로 퇴성하여 우조 성음을 표현 한 후 본청 C음으로 종지한다. C본청 평우조선율은 평조와 우조 느낌의 성음 표현과 음정 진행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3.4. 계면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계면조선율은 총 7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본청 계면조선율은 50장단 1음, g본청 계면조선율 9장단 4박, f본청 계면조선율 11장단 1박 2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4.1. c본청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c본청 계면조선율은 2패법, 5패법, 8패법, 9패법 등 네 가지의 패법을 사용하며 50장단 1음에서 출현한다. c본청 계면조의 주요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5>와 같다.

<예보 5> c본청 계면조





<예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40장단은 5패법으로 제 1박과 제 2박에서 c본청 계면조의 꺾는음  $e^b \rightarrow d$ 음과 떠는음 g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하면서 계면조 성음을 통해 조성을 확보하고 제 3박부터는 본청음 c음으로 선율진행 한다. 제 42장단 제 3박 제 2음부터는 2패법으로 패를 이동하여 떠는음 g음과 본청음 c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하고 있다.

제 59장단은 8패법을 사용하여 제 1박을 본청 c음과 더음청  $b^b \rightarrow a$ 음으로 퇴성한 후 엇청 f음과 꺾는음  $e^b \rightarrow d$ 음, 떠는음 g음을 거쳐 본청 c음으로 종지한다. 제 60장단은 8패법의 음역 확장을 위해 9패법으로 이동하여 꺾는윗음  $e^b$ 음과 엇청 f음을 거쳐 c본청 계면조선율을 강조 한 후 8패법으로 이동하고 제 5박과 제 6박은 본청 c음을 강조하면서 종지한다.

#### 2.3.4.2. g본청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계면조선율은 4패법, 5패법, 6패법, 7패법, 8패법 등 다섯 가지의 패법을 사용하며 9장단 4박에서 출현한다. g본청 계면조의 주요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6>과 같다.

## &lt;예보 6&gt;

## g본청 계면조

진양조

5

29 계면조 (g본청)

30 <7괘>

31 <5괘>

32 <8괘>

39 <4괘>

<예보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29장단은 5괘법 g본청 계면조선율로 떠는음 d음으로 시작하여 꺾는음  $b^b$ 음  $\rightarrow$  a음, 제4박 떠는음 d음, 엇청 c음을 퇴성한 후 본청 c음을 강조하는 선율로 종지한다. 제 30장단은 7괘법으로 5괘법 선율의 확장된 선율로 제1박 제2음을 더음청 f음을 본청 c음까지 추성하여 본청음을 강조한 후 추성을 통해 본청 c음을 강조하는 선율 진행을 하고 있다. 제 32장단은 8괘법으로 g본청 계면조의 꺾는윗음인  $b^b$ 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 한 후 제 5박에서 꺾는음  $b^b$ 음  $\rightarrow$  a음을 거쳐 제 6박에서는 본청 g음으로 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9장단은 제 1박에서 제 4박 제 2음까지의 선율은 5괘법 선율로 본청 c

음과 떠는음 d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 한 후 제 5박과 제 6박을 4괘법을 활용하여 5괘법의 음역 확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4.3. f본청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f본청 계면조선율은 4괘법, 5괘법, 8괘법 등 세 가지의 괘법을 사용하며 11장단 1박 2음에서 출현한다. f본청 계면조의 주요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예보 7>과 같다.

#### <예보 7>

#### f본청 계면조

84 <4괘> 계면 (f본청)

88 계면조 (c본청)

89 계면조 (f본청)

90 <4괘>

91

92 <8괘>

<예보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84장단은 4괘법 f본청 선율로 본청 f음의 완전4도 아래음인 c음을 떠는음으로 사용하며  $a^b$ 음  $\rightarrow$  g음을 꺾는음으로 사용하고 본청 c음을 반복적으로 선율진행 한 후 본청 c음으로 종지한다. 제 88장단은 f본청 계면조의 엇청 $b^b$ 음을 시작으로 엇청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 한 후 꺾는 윗음인  $a^b$ 음으로 종지한다. 제 89장단은 제 1박과 제 3박 제 1음까지 c본청 계면조선율로 변청하였다가 제 3박 제 2음부터는 f본청 계면조의 떠는음 c음, 꺾는음  $a^b$ 음  $\rightarrow$  g음을 거쳐 음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 6박을 5괘로 이동하여 선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 90장단 제 3박부터는 f본청 계면조의 엇청  $b^b$ 음, 꺾는음  $a^b$ 음  $\rightarrow$  g음, 본청 f음을 거쳐 제 6박 제 3음을 꺾는음으로 선율 진행한다. 제 92장단은 8괘법으로 f본청 계면조의 떠는음인 c음으로 시작하여 본청 f음, 꺾는음  $a^b$ 음  $\rightarrow$  g음을 거쳐 본청음을 강조하는 선율로 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사용음계

### 2.4.1. 우조

#### 2.4.1.1. C본청 우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우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G음) \cdot Sol(B^b음) \cdot La(C음) \cdot Do(E^b) \rightarrow Si(D음) \cdot Re(F음)$  등이 사용된다. 원래 우조 음계는 본청이 Do이며 음계의 구조는 Sol-La-Do(본청)-Re-Mi의 음조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중 우조 선율은 성음적·음악적 분위기 측면에서 우조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우조적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출현하는 음조식 구조는 Sol음계의 구조가 아닌 mi음계의 음조식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

조 중 C본청 우조선율의 음계는 mi음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성음을 우조 느낌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C본청 우조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8>과 같다.

&lt;예보 8&gt;

C본청 우조 음계



#### 2.4.1.2. G본청 우조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우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D음)·Sol(F음)·La(G음)·Do(B<sup>b</sup>)→Si(A음)·Re(C음)등이 사용된다. 원래 우조 음계는 본청이 Do이며 음계의 구조는 Sol-La-Do(본청)-Re-Mi의 음조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중 G본청 우조선율은 성음적·음악적 분위기 측면에서 우조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우조적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출현하는 음조적 구조는 Sol음계의 구조가 아닌 mi음계의 음조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우조선율의 음계는 mi음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성음을 우조적 느낌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G본청 우조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9>와 같다.

## &lt;예보 9&gt;

## G본청 우조 음계



## 2.4.2. 평조

2.4.2.1. B<sup>b</sup>본청 평조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중 B<sup>b</sup>본청 평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Re(F음)·Mi(Sol음)·Sol(B<sup>b</sup>음)·La(C음)·Do(E<sup>b</sup>음) 등이 사용된다. 평조 음계는 본청이 Sol이며 음계의 구조는 Re-Mi-Sol(본청)-La-Do의 음조식으로 구성된다. 산조에서 평조적 분위기는 우조나 계면조와 달리 평안하고 화평한 느낌이 성음적 특징이 있으며, 본청의 완전 4도 아래 음인 Re음을 빠르고 경쾌하게 흔들어준다. 또한 본청의 장2도음인 La음에서 본청음으로 퇴성하거나 마는듯한 농현으로 화평하고 평안한 느낌을 주는 성음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평조선율은 B<sup>b</sup>본청 평조음계와 B<sup>b</sup>본청 우조음계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이중적 구조의 음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즉 산조음악에서 우조음계의 음조식 구조와 평조음계의 음조식 구조는 마지막 음의 간격이 반음 차이로 구분되어 음조식 중 가운데 음인 본청에서 마지막 음과의 음정 관계가 완전4도이면 평조음계(Re음계), 장3도 관계이면 우조음계(Sol음계)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음계 사용에 있어서 이중적 구조는 전통적인 산조음악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B<sup>b</sup>본청 평조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10>과 같다.

&lt;예보 10&gt;

B<sup>b</sup>본청 평조 음계B<sup>b</sup>본청 우조 음계

## 2.4.3. 평우조

## 2.4.3.1. C본청 평우조

신평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중 C본청 평우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G음)·sol(B<sup>b</sup>음)·la(C음)·do(E<sup>b</sup>음)·re(F음)등이 사용된다. 평우조 음계는 평조와 우조성음이 동시에 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음계의 구조는 mi-sol-la(본청)-do-re의 음조식으로 구성되며 본청은 la가 된다. 산조에서 평우조적인 분위기는 평조성음의 특성인 평안하고 화평한 느낌이 성음적 특징과 우조적 특징인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추성 기법과 e<sup>b</sup>음→d음으로 퇴성하는 연주법을 사용하여 계면조의 느낌보다는 우조적인 성음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신평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평우조선율 음계의 음 구조는 계면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mi음계적 구조를 보이며, 성음적으로는 평조와

우조 성음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출현한다. C본청 평우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11>과 같다.

<예보 11> C본청 평우조 음계



#### 2.4.4. 계면조

##### 2.4.4.1. c본청 계면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c본청 계면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g음)·sol(b<sup>b</sup>음)·la(c음)·do(e<sup>b</sup>음)·re(f음)등이 사용된다. c본청계면조의 본청은 la(c음)이며, 사용하는 음계의 음 구조는 mi-sol-la(본청)-do(e<sup>b</sup>→d)-re(f)의 음조적으로 구성된다.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에서 c본청계면조는 슬프며 비애감(悲哀感)을 표현하는 성음적 특성을 보이며, 슬픈 느낌이 너무 진하지 않게 본청음(C음)을 퇴성하는 농현으로 처리하는 평계면조와 꺾꺾하고 담담하게 슬픈 느낌을 표현하는 우계면조, 그리고 슬픔이나 비애감이 절정에 달하는 진계면조에서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c본청계면조 음계의 특성인 mi음(g음)을 굵게 농현하여 사용하고, sol음(b<sup>b</sup>음)은 반음 아래로 퇴성하거나 본청음 la음(c음)으로 추성 또는 조르는 형태로 농현하여 사용한다. 본청 la음(c음)은 중심음으로 농현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며, 꺾는음 do음(e<sup>b</sup>→d)은 독립적으로 e<sup>b</sup>음 혼자 출현하는 형태로 사용하거나 d음으로 꺾는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꺾는음 e<sup>b</sup>음은 엇청인 f음으로

추성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 엇청 re음(f음)은 떠는음 g음으로 추성하거나 e<sup>b</sup>음으로 온음 관계 되성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 c본청계면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12>와 같다.

<예보 12> c본청 계면조 음계



#### 2.4.4.2. g본청 계면조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 계면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d음)·sol(f음)·la(g음)·do(b<sup>b</sup>음)·re(c음) 등이 사용된다. c본청계면조의 본청은 La(g음)이며 사용음계의 음구조는 mi-sol-la(본청)-do(b<sup>b</sup>→a)-re(c)의 음조식으로 구성된다.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g본청계면조는 슬프며 비애감(悲哀感)을 표현하는 성음적 특성을 보이며, 대부분의 선율은 계면조에서 출현하고, 우계면조에서 선율이 짧게 출현한다. g본청계면조는 c본청계면조 음계의 특성과 달리 음의 기능 측면에서 변화를 주는 형태로 사용한다. 즉 c본청계면조의 떠는음 g음이 g본청 계면조에서는 본청음으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g본청 계면조에서 mi음(d음)을 굽게 농현하여 사용하고, sol음(f음)은 반음아래로 되성하거나 본청음 la음으로 추성 또는 음을 조는 형태로 사용한다. 본청 la음(g음)은 중심음으로 농현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며, 꺾는음 do음(b<sup>b</sup>→a)은 독립적으로 b<sup>b</sup>음 혼자 출현하는 형태로 사용하거나 d음으로 꺾는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꺾는

음  $b^b$ 음은 엇청인 f음으로 추성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 엇청 re음(c)은 떠는음 d음으로 추성하거나  $b^b$ 음으로 온음 관계로 퇴성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

g본청계면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13>과 같다.

&lt;예보 13&gt;

g본청 계면조 음계



#### 2.4.4.3. f본청 계면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조 중 f본청계면조에서 출현하는 음들은 mi(c음)·sol( $e^b$ 음)·la(f음)·do( $a^b$ 음)·re( $b^b$ 음) 등이 사용된다. f본청계면조의 본청은 La(f음)이며, 사용음계의 음 구조는 mi-sol-la(본청)-do( $a^b \rightarrow g$ )-re( $b^b$ )의 음조직으로 구성된다.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에서 f본청계면조는 계면조의 슬픈 느낌과 비애감(悲哀感)을 표현하며, 특히 슬픔이나 비애감이 절정에 달하는 진계면조에서 사용한다. f본청계면조는 c본청계면조와 달리 음의 기능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즉 c본청계면조의 본청 c음이 f본청계면조에서는 떠는음으로 기능하고 c본청계면조의 엇청 f음이 f본청계면조에서는 본청음의 기능으로 변화하여 사용한다. f본청계면조 음계는 mi음(c음)을 굵게 농현하여 떠는음으로 사용하고, sol음( $e^b$ 음)은 반음 아래로 퇴성하거나 본청 la음으로 추성이나 조르는 형태로 기능한다. 본청 la음(f음)은 중심음으로 농현하지 않으며, 꺾는음 do음( $a^b \rightarrow g$ )은  $a^b$ 음 단독적으

로 사용하거나 g음으로 꺾는 형태로 사용한다. 꺾는음 a<sup>b</sup>음은 엇청 b<sup>b</sup>음으로 추성하여 사용한다. 엇청 re음(b<sup>b</sup>)은 떠는음 c음으로 추성하거나 a<sup>b</sup>음으로 온음 관계로 퇴성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 f본청계면조 선율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정리하면 <예보 14>와 같다.

<예보 14> f본청 계면조 음계



### 3. 결론

1950년대 녹음된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 음악구조에 관해 거문고산조의 사용패법, 조성구분 및 장단 수, 선율진행, 그리고 사용음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에서 사용하는 패법은 2패법, 4패법, 5패법, 6패법, 7패법, 8패법, 9패법 등 총 7개의 패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조선율에서는 4패법과 8패법, 평조 및 평우조 선율은 4패법과 7패법, 계면조 선율은 2패법, 4패법, 5패법, 8패법 등을 주요 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6패법이나 9패법 등은 조성에 적합한 선율 연주시 임시적으로 음역을 확장시킬 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에서 사용하는 조성은 우조, 평

조, 평우조, 계면조 등 4개의 조성을 사용하고 있다. 조성에 따른 사용장단 수는 우조선율은 9장단, 평조선율은 14장단, 평우조선율은 2장단, 계면조선율은 71장단 등 총 9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장단 수에서 현행 전승되고 있는 진양조선율은 총 120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락의 길이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1950년대 후반 진양조선율 중 4괘법과 7괘법으로 연주하는 평조선율 제 11장단부터 제 16장단까지의 선율은 미전승 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평동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의 우조선율은 C본청과 G본청 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조선율은 B<sup>b</sup>본청 14장단, 평우조선율은 C본청 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면조선율은 c본청 50장단 1음, g본청 9장단 4박, f본청 11장단 1박 2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신평동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의 사용음계는 우조선율의 경우 C본청과 G본청은 mi-sol-la-do-re의 mi음계를 사용한다. 전통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우조선율은 Sol음계를 사용하지만, 다른 산조와 동일하게 신평동 거문고 산조에서도 음계는 mi음계를 사용하고 성음적인 측면에서 우조성음을 사용하여 우조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평조선율의 경우 B<sup>b</sup>본청은 Re-Mi-Sol-La-Do의 전형적인 평조음계인 Re음계를 사용하며, B<sup>b</sup>본청 우조음계의 특성인 Sol-La-Do-Re-Mi의 Sol음계 음조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중구조적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C본청 평우조선율의 경우 평조와 우조성음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음계는 mi-sol-la-do-re의 mi음계를 사용한다. 계면조의 경우 c본청, g본청, f본청은 계면조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mi-sol-la-do-re의 음구조를 갖는 mi음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신평동류 거문고 산조의 음악 구성적 측면에서 사용괘법, 조성구분 및 장단 수, 선율진행, 사용음계 등을 고찰하여 1950년대 신평동류 거문고 산조의 구성적 특성과 산조 형성의 변화 과

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신파동 거문고 산조 유성기음반(SP), 5종의 장시간음반(LP), 그리고 현행 거문고 산조와의 음악구조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신파동 명인의 평생에 걸친 가락구성과 창작 방식의 특성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       |                 |
|-------|-----------------|
| 투고마감일 | : 2021년 01월 31일 |
| 투고연장일 | : 2021년 02월 16일 |
| 논문투고일 | : 2021년 01월 31일 |
| 심사개시일 | : 2021년 02월 22일 |
| 심사완료일 | : 2021년 03월 07일 |
| 게재확정일 | : 2021년 03월 17일 |

##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해숙(1987), 『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김해숙·백대웅·최태현(1995), 『전통음악개론』, 어울림.  
 박금애(1976), 『산조의 계보와 그 전래』, 공간사.  
 변미혜 외 2인(2008), 『국악용어 편수 자료집 I』, 민속원.  
 송방송(2011), 『한국현대음악인사전 上』, 보고서.  
 신쾌동 엮음(1977), 『현금곡전집』, 창명사.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전라북도립국악원(2016), 『풍류방의 명인들 -송영석의 판소리와 신쾌동 거문고산조-』  
 해설집, 전라북도립국악원, 2-35쪽.

### 2. 논문

- 권도희(2016),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한국음악연구』제59집,  
 한국국악학회, 7-36쪽.  
 노재명(1993), 「거문고산조 음반에 대하여」, 『한국음반학』Vol.3, 한국고음반연구회,  
 173-188쪽.  
 이형환(1992), 「패법을 통해 본 거문고산조의 조 변화」, 중앙대 석사논문, 1-106쪽.

■ 국문 요약

##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 선율에 관한 고찰

— 진양조 음악구조를 중심으로 —

이 형 환 · 김 백 만

산조의 명인들은 선생으로부터 배운 가락을 중심으로 평생에 걸쳐 개인의 음악성과 창작성을 가미하여 본인의 산조 유파를 형성하는 것이 산조 형성 과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신파동 명인의 거문고 산조는 1938년 유성기음반(SP) 첫 발매이후 1960년대 녹음한 장시간음반(LP) 5종의 음원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는 초창기 유성기 음반과 장시간 음반의 연주 길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거문고 산조가락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서봉((曙峯) 허순구(許珣九, 1903~1978) 선생의 기증 자료 중 1950년대 신파동 명인의 산조가락을 확인할 수 있는 음원이 존재하고 있어 거문고 산조 가락의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부합되게 1950년대 신파동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선율의 음악구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950년대 거문고 산조는 현행 거문고 산조와 동일하게 2·4·5·6·7·8·9패법 등 총 7개의 패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현행 거문고 산조와 동일하게 성음적 측면의 조성은 우조·평조·계면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단 수는 현행 산조 120장단, 1950년대 거문고 산조는 96장단을 사용하고 있어 24장단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평조로 연주하는

제11~제16장단까지의 6장단 가락은 미전승 가락이다. 셋째, 우조선율은 C·G본청, 평조선율은 B<sup>b</sup>본청, 평우조선율은 C본청, 계면조선율은 c·g·f본청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거문고 산조의 본청 구성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현행 거문고 산조에서는 계면조선율 중간에 E<sup>b</sup>본청 평조선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1950년대 가락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넷째, 사용음계는 우조선율 mi음계, 평조선율 Re·Sol음계, 평우조선율은 mi음계, 계면조선율은 mi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거문고산조 사용음계와 동일하다. 다만 평조선율에서는 이중구조적 음계를 사용하는 특징이 출현한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 중 진양조의 음악적 구조를 고찰하여 현행 거문고 산조 가락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신파동류 거문고 산조의 형성과정에서 산조가락의 첨가와 탈락, 그리고 가락의 확장과 축소, 시김새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거문고 산조 가락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 거문고 산조, 신파동, 우조, 평조, 계면조

■ Abstract

---

A Study on the Geomungo Sanjo Melody of  
the Shin, Qae Dong-style in the 1950s

— focusing on Jinyangjo —

Lee, Hyung-Hwan\* · Kim, Baek-Man\*\*

The results of the study of the structure of Sanjo centered on the Jinyangjo melody among the Shin Qae dong style Geomungo sanjo in 1950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ying Method (Gwaebeop) used in Jinyangjo uses a total of 7Gwaebeop such as 2, 4, 5, 6, 7, 8, 9 playing method. Secondly, The composition used is Woojo, Pyeongjo, Pyeong-woojo, Gyemyeonjo, and the number of Jangdan is composed of 96 Jangdan, which is characterized by being shorter than the current Jinyangjo 120 Jangdan. Thirdly, Jinyangjo's woojo melody use C·G main Key(Boncheong), Pyeongjo Melody uses B<sup>b</sup>, Pyeongwoojo melody uses C, Gyemyeonjo melody uses c·g·f main Key. Fourth, The tone used for Jinyangjo is Mi scale for Woojo, Re·Sol scale for Pyeongjo, Mi scale for Pyeongwoojo, and mi scale for the Gyemyeonjo.

Key-words : Geomungo Sanjo, Shin Qae-dong Woojo, Pyeongjo, Gyemyeonjo

---

\* Chung-Ang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 &lt;부록 악보&gt;

1 <1950년대 신 패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연주: 신 패동  
재보: 이형환

거문고

1 <4괘> 우조 (C본정)

서릉 당 1등 도 2등 2등 도 2등 2등 물

2

울 기 등 물 당 1등 등 장 장 정

3

등 1등 도 2등 2등 로 2등 2등

4 <8괘>

등 2등 물 등 2등 등 당 2등 당 물 등 당 물

5 우조 (G본정)

상 4등 물 4등 물 물 4등 물 2등 물

6 <9괘>

3등 4등 4등 4등 3등 4등 3등 3등 물 2등 2등 로 3등 2등

7 우조 (C본정)

등 당 2등 두 다 1등 등 당 당 물

8

등 2등 물 등 2등 등 당 2등 당 물 도 웃 당 물

9 <4괘>

물 기 등 등 등 등 등 등

10 <4괘> 명조 (B<sup>b</sup>본정)

물 서 명 물 두 다 1등 물 물 다 2등 1지 등 당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2

11 동 당 다당 다 동 당 당 당 당 당 당 물

12 동 당 1장 당 2장 1장 물 두 다 2장 라 1장 1장

13 물 살 3장 물 2장 동 2장 물 로 2장 3장 2장

14 동 동 당 동 당 물 동 2장 동 3장 2장 동 당 물

15 동 2장 4장 3장 동 2장 동 다 동 두 당 물

16 동 도 듯 동 다 1장 동 당 동 두 당 물

17 물 살 3장 물 2장 도 듯 2장 물 로 2장 3장 물 물

18 동 도 듯 동 1지 잇 도 라 1지 잇 당 당 동 1장 2장 로 3장 물

19 물 서령 4장 2지 3장 1장 동 2장 동 트 라 1지 잇 당 물 물

20 물 살 1장 물 다 아 1장 물 2지 1장 물 동 물

&lt;1950년대 선패동류 거문고산조&gt;

진양조

3

21  
1징 당 도당 1등 동 당 두 징 동

22 평조(B<sup>b</sup>본정)  
동 물 당 1징 물 당 두 두 당 2징 라 1징 1징 물

23  
당 1징 당 2징 1징 2지 이 이 잇 2징 1징동 당 2지 1리 다 1징

24  
동 다 1징 도 라 동 당 영 영 영 영 물

25 <돌가락>  
동 당 도 라 2징 1징 동 1등 물 동 2징 지 라 2징 물

26 평계면(c본정)  
스르 1징 물 라 1징 2징 당 1징 1징 물

27  
당 두 당 1징 라 2징 동 당 1징 라 1징 물

28  
당 물 1징 2징 2지 라 당 1징 라 1징 물 2잇 동 2징

29 계면조(g본정)  
동 당 동 2징 도 오 웃 동 동 다 2등 잉 동 당 당

30 <7괘>  
물 살 3징 물 징3 징3 물 징3 2징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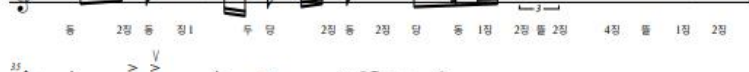
4

31 <5레>  
  
 당 1정 동 당 동 라동 다 2동 당 동 당 당

32 <8레>  
  
 물 앞 정4 정4물 정4 물 정4 물 정4 정3 정2 물

계면조 (c본정)  
  
 지1 잇 정1 도 오 웃 동 당 동 당 동 정2 동 정2 동 2정 물

34 <5레>  
  
 동 2정 동 정1 두 당 2정 동 2정 당 동 1정 2정 물 2정 4정 물 1정 2정

35 <5레>  
  
 동 2정 잇 당 동 2정 당 동 동 1정 1정 2정

36 계면조 (g본정) <6레>  
  
 동 2정 물 동 2정 동 1정 물 3정 물 3정 2정

37 <5레>  
  
 2정 이 잇 동 당 동 2정 당 동 1정 동 당 당 물

38 <5레>  
  
 동 3정 물 도 오 웃 동 당 물 동 동 물 당 당

39 <4레>  
  
 물 씨 당 당 동 다 2동 물 다 당

40 <5레>계면조 (c본정)  
  
 동 당 당 다 동 당 당 당 당 물

&lt;1950년대 신파 동류 거문고산조&gt;

진양조

5

41  
중 당 중 다 중 당 중 당 다 로 1등 1등 중

42  
당 1등 중 당 물 중 당 당 물 1등 1등 리 1등 물

43  
스르 1등 청 러 1등 당 1등 1등

44  
스르 1등 물 1등 당 2등 물 당 당 물 2등 당 1등 1등

45 <5레>  
물살 당 물 1등 다 중 당 중 당 1등

46  
당 2등 2등 당 1등 다 중 당 중 당 물 1등 청 당 물

47  
스르 당 청 두 다 중 당 당

48  
중 3등 2등 1지 및 중 당 중 중 다 2등 당 중 당 당

49 <진계면>  
물살 1등 물 도 1지 여 영 1등 중 물

50  
1지 여 및 중 당 도 1등 중 중 물 당 당 물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6

51 1징 물 등 당 물 1징 등 등 등 다 등 당 등 당 물

52 <우계면> 물 살 2징 2징 물 1징 2징 1징 3징 2징 1지엿 1징 도 1징 등 물

53 1징 물 등 1등 물 등 1등 1징 물 등 2징 물도 오 웃 등 당 당

54 <진계면> 살 4지리 4징지리 4징 4징 4징 5징 3징 4징 2징 3징 1징 2지엿 등 2지엿 당 등

55 당 2징 등 물 당 다 등 등 등 물 3지엿 3지엿 4지엿 4지엿 2징 3징

56 술 기 등 등 당 물 등 2징 3징 2징 1징 등 당 물

57 다 아 엿 등 물 당 물 등 등 등 다 2등 당 등 당 물

58 물 살 4징 물 4징 4징 4징 4징 4징

59 4지 3징 2징 2지엿 2지엿 1징 등 당 등 등 당 당 물

60 <9괘> 살 5징 5지리 지 영 물 5징 5징 5징 5징 5징 4징 4징

&lt;1950년대 신편류류 거문고산조&gt;

진양조

7

61 3장 둘 2장 2장 1장 1장 1장 동 도 오 웃 동 둘 당 두

62 당 3장 2장 1장 동 당 도 1장 동 다 2장 당 동 당 당

63 <우계면> 물 씨 명 2장 로 2장 2장 물 2장

64 술 키 동 물 동 물 1장 당 동 정 정

65 설 3장 둘 2장 도 웃 1장 2장 로 2장

66 1장 2장 동 1장 동 1장 당 동 2장 도 웃 동 당 물

67 우계면조 (g본정) 당 4장 물 지라4장 물 4장 물 4장 4장 4장 물 4장 3장 물

68 계면조 (c본정) 동 2장 물 로 장 동 2장 4장 3장 2장

69 동 다 웃 당 동 1장 2장 3장 1장 2장 4장 3장 2장 2장 2장 3장

70 당 물 동 다 도 오 웃 동 당 동 당 당 물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8

진양조

71. 등 3정 물 드 오 오 웃 등 당 물 등 등 다 2등 당 물

72. 2등 물 당 2등 당 2등 당 등 두 당 2정 등 2정 당 2정 2지 리 등

73. 당 2지 등 다 도 오 웃 등 당 등 다 2등 당 등 당 당

<진계면>

74. 물 살 4정 4정 물 다 오 2정 4정 4정 4정 물

75. 당 2정 4정 당 2정 4정 당 2정 5정 물 4정 물 2정 1지 2정 4정 물

76. 살 4정 4정 5정 4정 2정 3정 2정 3정 2정 1정 등 등

77. 물 살 3정 물 2정 1정 1정 도 오 오 웃 도 오 웃 등 물 당 두 당 등

78. 4정 3정 등 다 등 당 등 등 다 2등 당 등 당 당

79. 물 살 1정 물 등 1정 1정 1정 1정 등 물

80. 1정 2정 2정 1정 등 1정 2정 3정 2정 1정 1정 등 1정 등 물

&lt;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gt;

진양조

9

81 <5괘>

물 살 2장 2장 1지 동 당 1장 라 1장

82

물 3장 2장 1장 2장 3장 당 당 물 2장 당 1장 물

83

스크 1장 물 1장 동 물 당 당 1동 1동

84 <4괘>계면 (본정)

동 당 물 동 당 동 물 당 동 동 다 2동 당 동 당 당

85

물 살 1장 1장 도 1장 1장 1장 1장 동 물

86

1장 동 당 동 1장 동 동 동 당 당 물

87

1장 물 당 물 도 웃 동 동 동 다 2동 당 동 당 물

88

물 1장 물 도 1장 1장 1장 1장 동 물

89 계면조 (c본정) 계면조 (f본정) <5괘>

동 동 1장 동 3장 물 2장 2장 동 동 2장 보 1장 물

90 <4괘>

살 3장 3장 2장 2장 1장 동 동 당 당 동

<1950년대 신파동류 거문고산조>

10

진양조

91

동 당 두 닷 동 당 도 라 동 동 다 2동 당 동 당 당

92 <8괘>

동 당 1장 당 2장 당 1장 1장

93

동 다 동 당 당 2장 돌 1장 당 당 돌 2장 당 1장 돌

계면조(c본정)

94

동 동 돌 2장 도 1장 3장 2장 4장 2장 돌 5장 돌 3장 2장

95

2장 2장 3장 2장 1장 동 당 2장 1장 도 라 1장 동 당 돌

96

1장 동 당 도 1장 동 동 동 다 2동 당 동 당 동

